『童蒙先習』의 著者에 관한 硏究*

The Study of Writer Who Wrote a *Dongmongseonseup*

류 부 현(Boo-Hyeon Yoo)**

〈 목 차 〉

Ⅰ. 緖 言
Ⅱ. 『童蒙先習』의 刊行
Ⅲ. 『童蒙先習』의 著者
1. 『童蒙先習』 著者에 관한 異論
2. 朴世茂와 閔齊仁의 『童蒙先習』 共述
Ⅳ. 結 言

초 록

본 연구는 『동몽선습』의 저자에 대한 정론을 수립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래 살펴보지 못했던 몇 가지 자료에 의거하여 『동몽선습』의 저자에 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동몽선습』은 박세무와 민제인의 공저로서 박세무는 『동몽선습』 내용 가운데 전반부인 경부에 해당되는 '(오륜)'을 집필하고, 민제인은 후반부인 사부에 해당되는 '(역대요의)'를 저술한 후 합편한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동몽선습, 박세무, 민제인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finding a clue that can establish a sound argument about who the writer of *Dongmongseonseup* was. Several significant materials that hadn't been examined before were studied so now is examined more specific. The conclusion is that *Dongmongseonseup* was a collaboration between Park Se-Mu and Min Je-In. Park Se-Mu wrote the moral rules to govern the Five Human Relations that is the part of the Kyeong, the first part of *Dongmongseonseup*. Min Je-In wrote the last part of it, the historical work Yeokdaeyoui, and then put the two works together.

Keywords: *Dongmongseonseup*, Park Se-Mu, Min Je-In

* 이 論文은 2009학년도 大眞大學校 學術硏究費支援에 依한 것임.
** 大眞大學校 文獻情報學科 敎授(boohyun@daejin.ac.kr)
• 접수일: 2009년 7월 14일 • 최초심사일: 2009년 8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9년 9월 21일

I. 緖 言

『童蒙先習』은 조선시대에 간행된 童蒙敎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또한 책의 내용과 구성이 매우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책의 보급과 유통 면에 있어서도 그 규모가 당시에 동몽교재로 간행 유통되었던 『童蒙須知』, 『小學』, 『孝經』 등에 비견될 정도로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것이었다. 즉 『童蒙先習』이 저술된 이후에는 조금이라도 文字를 解得했다면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널리 읽혀졌다. 더욱이 顯宗 이후엔 王世子의 교육도 『孝經』, 『童蒙先習』, 『小學』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常例가 되었다.[1] 특히 英祖 때에는 芸館에서 『童蒙先習』의 卷頭에 英祖의 御製序文이 첨부되어 간행되기까지 하였다.[2] 『童蒙先習』이 이와 같이 큰 聲價를 얻고 또 널리 읽히게 된 것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長點들 때문이었다.[3]

이렇게 조선시대에 漢文 初學者를 위한 기초적인 교재로 애용되었던 『童蒙先習』에 대해서 일찍이 일본인 前間恭作과 渡部學에 의한 내용 소개 위주의 간단한 연구가 있었다.[4] 이후 김동욱, 안병희, 이숭녕, 한영우, 안춘근, 박동수, 최봉영, 정순목 등에 의해서 內容, 口訣, 版本, 著者 등의 여러 방면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5] 筆者 또한 『童蒙先習』의 版本과 文字異同 그리고 著者에 관련하여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6] 있다.

『童蒙先習』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童蒙先習』의 저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論難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래 살펴보지 못했던 몇 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童蒙先習』의 저자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향후 『童蒙先習』의 저자에 대한 定論을 수립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마련하는 데 있다.

---

1) 『列聖朝繼講册子次第』 및 『列聖朝進講册錄』 참조.
2) 〈表 1〉 "『童蒙先習』 刊行 一覽表"의 제15항 참조.
3) 崔鳳永, "童蒙先習硏究," 童蒙先習의 兒童敎科書的 意義와 著者異說에 관한 硏究(咸陽朴氏宗親會, 1986), p.165.
4) 前間恭作, 古鮮册譜(東京 : 東洋文庫叢刊, 1957), p.1535.
渡部學, 近世朝鮮敎育硏究(東京 : 雄山閣, 1969), p.275.
5) 金東旭, "坊刻本에 대하여," 東方學志, 11집(1970), pp.88-104.
安秉禧, "童蒙先習과 그 口訣," 金亨奎敎授停年退任紀念論文集(서울 : 1976), pp.267-323.
李崇寧, "旣存事典의 誤記와 混線에 대하여-특히 『童蒙先習』의 編者是非를 중심으로 하여-," 編纂彙報(精神文化硏究院, 1980), pp.11-19.
韓永愚, 朝鮮前期史學史硏究(서울 : 서울대, 1981), pp.235-256.
安春根, 韓國古書 評釋(서울 : 동화출판사, 1986), pp.135-152.
朴東洙, "補說," 童蒙先習의 兒童敎科書的 意義와 著者異說에 관한 硏究(咸陽朴氏宗親會, 1986), pp.1-7.
崔鳳永, "童蒙先習硏究," 童蒙先習의 兒童敎科書的 意義와 著者異說에 관한 硏究(咸陽朴氏宗親會, 1986), pp.165-179.
丁淳睦, 朝鮮時代의 敎育名著巡禮(서울 : 培英社, 1986), pp.47-86.
6) 柳富鉉, "童蒙先習의 書誌的 硏究," 書誌學硏究, 5·6합집(1990. 12), pp.481-524.
柳富鉉, "童蒙先習 異本의 文字異同 硏究," 書誌學硏究, 15집(1998. 6), pp.77-102.

Ⅱ.『童蒙先習』의 刊行

여기에서는『童蒙先習』의 저자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童蒙先習』가치와 중요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선시대『童蒙先習』의 간행 규모와 現存本의 상황을 一瞥해 보고자 한다.

『童蒙先習』은 1543년 尹仁恕가 平壤에서 간행한 平壤癸卯本과 1544年 以前 어느 즈음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朴世茂私家本을 비롯해서 총 31 種이 간행되었으며, 그 현존본은 17 種에 이르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表 1〉"『童蒙先習』 刊行 一覽表"와 같다.

〈表 1〉"『童蒙先習』 刊行 一覽表"

順番	版本名	刊年	所藏處	出處	備考
1	平壤癸卯本	1543年	故 安春根		尹仁恕跋
2	朴世茂私家本	1544年 以前		『中宗實錄』	
3	丙午本	1546年 以前		『古鮮册譜』	
4	光州本	1568年 以前		『攷事撮要』	
5	鳳山本	1585年 以前		『攷事撮要』	
6	高山本	1585年 以前		『攷事撮要』	
7	南海本	1585年 以前		『攷事撮要』	
8	巨濟本	1585年 以前		『攷事撮要』	
9	密陽丁亥本	1587年	日本 尊經閣		
10	慶州本	1699年 以前	高麗大 外	『東京雜記』	
11	完山甲午本	1714年	奎章閣 外		宋時烈跋
12	芸閣初刊本	1741年 以前		『承政院日記』	
13	嶺南本	1741年 以前		『承政院日記』	慶州本과 同本(?)
14	宋時烈跋文本	1741年 以前		『承政院日記』	完山甲午本과 同本(?)
15	芸館壬戌本	1742年	奎章閣 外	『承政院日記』	英祖御製序文·宋時烈跋
16	芸館壬戌諺解本	1742年	奎章閣 外	『英祖實錄』	
17	龍潭本	1759年 以前		『完營册版目錄』	
18	濟州本	1796年 以前		『鏤板考』	
19	旌善本	1796年 以前		『鏤板考』	
20	義興本	1796年 以前		『鏤板考』	
21	丁巳諺解本	1797年	奎章閣 外		
22	春坊己卯本	1819年	奎章閣 外		15항과 同
23	辛丑筆寫本	1781年	한국학중앙연구원		歲辛丑仲秋禾 日逍遙子書
24	全州本	1840年 以前		『各道册版目錄』	
25	由洞丁未本	1847년	高麗大 外		
26	華山丙辰本	1856年	한국학중앙연구원 外		
27	丁巳重刊本	1857年	梨花女大 外		
28	石橋己未本	1859年	故 安春根		
29	辛卯重刊本	1891年	한국학중앙연구원 外		
30	咸昌丙申本	1896年	高麗大 外		
31	石橋庚子本	1900年	故 安春根		愼村子署
32	大邱刷還洞本	1910年 以前	高麗大 外		

(陰影으로 처리된 것은 기록에서만 확인되고, 그 실물은 현재 발견되지 않은 판본이다.)

Ⅲ. 『童蒙先習』의 著者

1. 『童蒙先習』 著者에 관한 異論

『童蒙先習』의 著者에 대해서는 『童蒙先習』의 출현 초기부터 분명하지 못했으며, 지금까지도 異說이 분분하다. 여기에 대해서 문헌에 나타난 기록을 조사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表 2〉 "『童蒙先習』의 著者에 대한 諸說"과 같다.

일찍이 沈守慶은 그의 著書 『遣閑雜錄』[7]에서 그리고 宋時烈은 자신이 쓴 『童蒙先習』 「跋文」[8]에서 『童蒙先習』의 著者가 누구인지 몰랐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權文海의 『大東韻府群玉』에서 처음으로 金安國이 『童蒙先習』의 著者로 기록된[9] 이후, 이 金安國說은 權鞸의 『海東雜錄』[10]과 金烋의 『海東文獻總錄』[11] 및 徐有榘의 『鏤板考』[12]에도 踏襲되었다. 그러나 이 金安國說은 『大東韻府群玉』의 著者인 權文海가 『童蒙先習』의 著者를 朴世茂와 같은 年代의 인물인 金安國으로 錯覺한 것[13]이고, 金安國은 『童蒙先習』과 전혀 無關한 것[14]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增補文獻備考』[15]에는 『童蒙先習』의 著者로서 우선 朴世茂가 기재된 다음 부가적으로 "又一卷吏文學官魚叔權撰"이라고 기록되어, 『童蒙先習』의 다른 著者로서 魚叔權說이 등장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渡部學은 "魚叔權이 『童蒙先習』을 撰했다는 것은 原著作이라는 意味가 아니고 吏讀의 割註를 附加한 것이다."[16]라는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다. 魚叔權은 종래 『童蒙先習』의 單獨 著者로 이해되었던 朴世茂와 동시대 인물[17]이기는 하다. 하지만 渡部學의 견해처럼 魚叔權이 『童蒙先習』에 기재된 吏讀의 割註를 附加한 것이라기보다는, 원래 있던 吏讀를 고쳐 단 것으로 이해하는 것[18]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7) 〈表 2〉 "『童蒙先習』의 著者에 대한 諸說"의 제6항 참조.
8) 〈表 2〉 "『童蒙先習』의 著者에 대한 諸說"의 제8항 참조.
9) 〈表 2〉 "『童蒙先習』의 著者에 대한 諸說"의 제4항 참조.
10) 〈表 2〉 "『童蒙先習』의 著者에 대한 諸說"의 제5항 참조.
11) 〈表 2〉 "『童蒙先習』의 著者에 대한 諸說"의 제7항 참조.
12) 〈表 2〉 "『童蒙先習』의 著者에 대한 諸說"의 제14항 참조.
13) 朴東洙, "補說", 童蒙先習의 兒童敎科書的 意義와 著者異說에 관한 硏究(咸陽朴氏宗親會, 1986), p.2.
14) 李崇寧, "旣存事典의 誤記와 混線에 대하여 - 특히 『童蒙先習』의 編者是非를 중심으로 하여 -," 編纂彙報(精神文化硏究院, 1980), p.15.
15) 〈表 2〉 "『童蒙先習』의 著者에 대한 諸說"의 제16항 참조.
16) 渡部學, 近世朝鮮敎育硏究(東京 : 雄山閣, 1969), p.256.
17) 〈資料 4〉 "魚叔權" 참조.
18) 柳富鉉, "童蒙先習의 書誌的 硏究," 書誌學硏究 5·6합집(1990. 12), p.486.

〈表 2〉 "『童蒙先習』의 著者에 대한 諸說"

順番	著者	出處	內容	出處編年
1	**閔齊仁 共著**	「尹仁恕跋文」	今監司羅興閔相國齊仁…乃與同志其述一編…嘉靖癸卯仲冬…謹跋	1543年
2	**朴世茂**	『中宗實錄』[19]	麻田郡守朴世茂上疏曰…史臣曰…世茂…常著童蒙先習一卷刊行于世	1544年
3	朴世茂	「朴世茂墓碣銘」 『穌齊先生文集』[20]	嘗著童蒙先習以敎子弟遂刊行于世	1554年 頃
4	金安國	『大東韻府群玉』[21]	**童蒙先習金慕齋所著**首論五倫之道又有總論先之以中國次及東方之事	1591年 以前
5	金安國	『海東雜錄』[22]	童蒙先習慕齋所著首論五倫之道又有總論先之以中國次及東方之事	1591年 頃
6	朴世茂	『遣閑雜錄』[23]	近世有童蒙敎訓之書名曰**童蒙先習者未知何人所著**或云斯文朴世茂所著	1591年 頃
7	金安國	『海東文獻總錄』[24]	童蒙先習金安國所著首論五倫之道又有總論先之中國次之以東方之事	1637年
8	朴世茂	「宋時烈跋文」	余幼時見人家子弟初學者無不以是書爲先而第**不知出於何人之手矣**今朴上舍廷儀氏來謂余曰此吾高祖諱世茂之所編也余不覺驚喜曰今日始知其人矣…崇禎紀元之商橫閹茂…謹跋	1670年
9	朴世茂	『英祖實錄』[25]	戶曹參議朴聖輅上疏曰童蒙先習芸閣刊行之命此則臣五代祖故獻納臣世茂所著也	1741年
10	**朴世茂**	『英祖實錄』[26]	命芸館刊進童蒙先習是書卽中廟朝世茂所著也	1742年
11	朴世茂	「朴士行墓碣」 『陶菴先生文集』[27]	逍遙堂世茂著童蒙先習行于世	1746年 以前
12	朴世茂	「朴知誡誌狀」 『潛冶先生集』[28]	祖諱世茂號逍遙堂…所著童蒙先習一册尙今盛行於世	1748年 以前
13	**朴世茂**	「橡軒隨筆」 『順菴先生集』[29]	我俗蒙學初程先敎千字文…次敎童蒙先習中廟朝參判咸陽朴世茂撰	1791年 以前
14	朴世茂 金安國	『鏤板考』[30]	童蒙先習一卷李朝軍資正朴世茂撰 或云金安國撰其書首說論五倫次敍歷代沿革	1796年
15	朴世茂	『純祖實錄』[31]	前僉知朴文和陳疏以爲…此書則臣八代祖…世茂之所作	1801年
16	**朴世茂** 魚叔權	『增補文獻備考』[32]	童蒙先習一卷軍資正朴世茂撰 又一卷吏文學官魚叔權撰	1831年
17	**朴世茂**	『硏經齋全集』[33]	童蒙先習…朴世茂所著…自號逍遙子	1839年 以前

19) 『中宗實錄』 卷 103, 中宗 39年 5月 丙寅條 記事.

20) 「朴世茂墓碣銘」은 穌齊 盧守愼(1515-1590)이 지은 것으로 박세무가 沒한 1554년경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1) 『大東韻府群玉』은 權文海(1534-1591)가 편찬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壬辰倭亂으로 인하여 편찬 즉시 출판되지 못하고 1798년(정조 22년)에 이르러서 출판되었다.

22) 『海東雜錄』은 權文海(1534-1591)의 아들 權韠(生沒年未詳)이 편찬하였고, 『大東野乘』에 실려 세상에 전해지고 있으나 이 책의 편찬 시기는 미상이다.

23) 『遣閑雜錄』은 沈守慶(1516-1599)이 편찬하였고 1591년경에 출판되었다(『國譯大東野乘』 「견한잡록해제」, p.533).

24) 『海東文獻總錄』은 金烋(1597-1638)가 1637년에 편찬하였다.

25) 『英祖實錄』 卷 54, 英祖 17年 7月 丙子條 記事.

26) 『英祖實錄』 卷 54, 英祖 18年 6月 乙卯條 記事.

27) 「朴士行墓碣」은 李縡(1680-1746)가 지은 것으로 1803년에 간행된 『陶菴集』에 실려 있다.

28) 「朴知誡誌狀」은 朴弼周(1712-1791)가 지은 것으로 1766년에 간행된 『潛冶集』에 실려 있다.

무엇보다도 『童蒙先習』의 著者에 대해서는 〈表 2〉 "『童蒙先習』의 著者에 대한 諸說"에 나타나듯이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여러 문헌 기록을 통해 보았을 때, 朴世茂가 그 著者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그런데 1981년 安春根에 의해 이른바 平壤癸卯本이 발견되었고, 『童蒙先習』의 著者는 朴世茂가 아니라 閔齊仁이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34] 이것은 平壤癸卯本의 간행 경위를 기록한 尹仁恕의 跋文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童蒙先習』 平壤癸卯本 尹仁恕 跋文의 原文〉

"竊嘗病近世之習父兄之敎子弟, 不越乎訓詁文章之末, 而敦本誘掖之方, 蔑蔑無聞焉. 今監司驪興閔相國齊仁痛俗之痼, 而用情栝性, 爲禽犢之歸. **乃與同志共述一編**, 條揭五倫, 質以經傳之語, 總敍歷代, 逮吾東方之事. 名之曰童蒙先習, 以爲家訓, 其書簡略易曉, 不月瑩了矣.

嗚呼, 其切於人倫日用, 詔牖後學, 維持世敎之意至矣. 窮鄕晩進得而習之, 蘊以爲行身之模範, 資以爲學古之指南, 亦足多識而蓄德矣, 豈但童子擊蒙而已乎. 圭復感歎, 拜請手梓庸示篤行進學之門, 公頷而命跋, 於是乎書.

嘉靖癸卯仲冬下澣行都事坡平尹仁恕謹跋."

〈『동몽선습』 평양계묘본 윤인서 발문의 국역문〉

"(내가) 가만히 요즈음 아이들의 학습과 부형들의 자제교육이 말단적인 훈고와 문장에만 치우치고, 근본을 돈독히 하여 이끌어주는 방도는 까마득하게 들을 수 없게 된 것을 근심하였다. 지금의 감사인 상국 여흥 민제인이 풍속이 병들어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성품을 질곡하여 금수와 가깝게 됨을 애통하게 여겼다. **마침내 동지와 함께 한 권의 책을 지었는데**, 오륜을 조목조목 담아 경전의 말씀으로 질정하고, 역대의 역사를 모두 서술하여 우리나라의 역사까지 미치었다. 이름 하여 '동몽선습'이라 하고 가훈으로 삼았는데, 그 내용이 간략하고 알기가 쉬어 오래 걸리지 않고 그 뜻을 환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아! 선생이 인륜과 일상생활에 간절히 하여 후학을 깨우쳐 인도하고 세상의 교육을 유지하는 뜻이

29) 「橡軒隨筆」은 安鼎福(1712-1791)의 저술로 1900년에 간행된 『順菴集』에 실려 있다.
30) 『鏤板考』는 徐有榘(1764-1845)가 1796년에 편찬하였다.
31) 『純祖實錄』 卷 3, 純祖 元年 6月 丙辰條 記事.
32) 『增補文獻備考』는 1796년에 완성된 『東國文獻備考』에 「藝文考」 등 7考가 보완되어 1831년에 완성되었고, 1908년에 다시 수정 편찬 간행되었다.
33) 『研經齋全集』은 成海應(1760-1839)의 저술로 그 筆寫本이 高麗大에 소장되어 있다.
34) 安春根, 韓國古書 評釋(서울 : 동화출판사, 1986), p.228.

지극하도다. 시골의 때늦은 사람도 이 책을 얻어 공부하고 축적하여 행동의 규범으로 삼고, 이것을 자뢰하여 학문의 지남으로 삼는다면, 또한 족히 많은 지식과 덕을 쌓을 수가 있으니, 어찌 다만 아동의 무지를 깨우칠 뿐이겠는가! (내가) 재삼 읽어 보고 감탄하여, 이 책을 간행하여 행실을 독실하게 하고 학문에 나가는 문을 백성들에 보여줄 것을 청하니, 선생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나에게 발문을 쓰라고 하시니 이에 발문을 쓰는 바이다.

가정 계묘(1543년) 중동 하순에 행도사 파평윤인서는 삼가 발문을 쓰노라"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童蒙先習』平壤癸卯本 尹仁恕 跋文을 근거로 하여, 安春根은『童蒙先習』의 著者는 朴世茂가 아니라 閔齊仁이라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 跋文에 근거하여『童蒙先習』은 朴世茂의 주도 아래 閔齊仁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 즉『童蒙先習』의 主된 著者는 朴世茂이고 共述者는 閔齊仁으로 추정하는 견해[35]가 崔鳳永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반면, 이『童蒙先習』平壤癸卯本 尹仁恕 跋文의 내용이 虛僞라는 주장[36]도 있다. 그러나 그 발문의 내용이 虛僞가 아니라고 간주[37]되는 한『童蒙先習』의 著作은 朴世茂의 單獨 著述이 아니라 閔齊仁과의 共著[38]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2. 朴世茂와 閔齊仁의『童蒙先習』의 共述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童蒙先習』은 朴世茂와 閔齊仁의 共著이며, 朴世茂가 주된 저자이고 閔齊仁은 협력자이었을 것이라는 종래의 견해가 있었다. 그렇다면 공저자로서의 閔齊仁은 朴世茂와 어떠한 關係이었기에『童蒙先習』을 共述하게 되었을까? 또한 어떠한 내용을 분담해서 共述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게 된다. 이제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추론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먼저 朴世茂와 閔齊仁의 關係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분명 두 분이 무슨 交分이 있었기 때문에『童蒙先習』을 共述했을 것이다. 필자는 이점에 관심을 갖고 여러 문헌을 뒤졌지만 안타깝게도 두 분의 직접적인 관계를 구명해 볼 수 있는 사실을 어떠한 문헌 기록에서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두 분의 직접적인 교분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분 사이에

35) 崔鳳永, "童蒙先習硏究," 童蒙先習의 兒童敎科書的 意義와 著者異說에 관한 硏究(咸陽朴氏宗親會, 1986), p.169.

36) 朴東洙, "補說," 童蒙先習의 兒童敎科書的 意義와 著者異說에 관한 硏究(咸陽朴氏宗親會, 1986), p.4.

37) 崔鳳永, "童蒙先習硏究," 童蒙先習의 兒童敎科書的 意義와 著者異說에 관한 硏究(咸陽朴氏宗親會, 1986), p.168.

38) 李崇寧, "旣存事典의 誤記와 混線에 대하여 - 특히『童蒙先習』의 編者是非를 중심으로 하여-," 編纂彙報(精神文化硏究院, 1980), p.15.
柳富鉉, "童蒙先習의 書誌的 硏究," 書誌學硏究 5·6합집(1990. 12), p.486.

서로 교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端緖를 찾을 수가 있었다.[39] 그것은『立巖集·追補』에 附錄된「癸丑甲契錄」[40]이다.

「癸丑甲契錄」에는 癸丑(1493년)生으로 구성된 契員 17인의 인적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주목을 끌게 되는 내용은 閔齊仁과 朴世蓊[41]이 같은 계원이라는 사실이다. 朴世蓊은 바로 朴世茂의 동생이다. 이「癸丑甲契錄」을 통해서 閔齊仁은 朴世茂의 동생인 朴世蓊의 친구이었음이 밝혀졌고, 아울러 朴世茂는 동생의 친구인 閔齊仁과 분명 교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두 분은 친구의 형, 동생의 친구로서 충분히『童蒙先習』을 共述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단정해도 무방하겠다.

다음으로『童蒙先習』에 대한 두 분의 共述 관계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우선 朴世茂와 閔齊仁 두 분의 학문을 살펴보면, 두 분 모두『童蒙先習』을 저술할 정도의 학문적 소양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그런데 특히 閔齊仁은 역사에 상당한 식견이 있었다. 이것은 閔齊仁이『東國史略』3권을 저술했던 것[42]으로 미루어 볼 때 매우 일리가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童蒙先習』의 構成을 살펴보면, 주지하듯이『童蒙先習』은 "먼저 五倫의 道를 논하고 다시 總論을 두었는데, 우선 中國의 역사를 서술하고 다음으로 東國의 역사를 서술한 것이다."[43] 이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의〈表 3〉"『童蒙先習』의 構成과 內容"과 같다.

〈表 3〉"『童蒙先習』의 構成과 內容"

	構成(章節 題目)		內 容			
(經部)			(五倫의 머리말)			天地之間……
		父子	(父子有親)			父子天性之親……
		君臣	(君臣有義)			君臣天地之分……
	(五倫)"[44]	夫婦	(夫婦有別)			夫婦二姓之合……
		長幼	(長幼有序)			長幼天倫之序……
		朋友	(朋友有信)			朋友同類之人……
		總論	(五倫의 맺음말 및 歷代要義의 머리말)			此五品者天敍之典 …… 可不勉其學問之力哉 玆用摭其歷代要義書之于左
(史部)			(歷代要義)	(中國史)	(史實)	蓋自太極肇判……
					(맺음말)	嗚呼……皆由於人倫之明不明如何耳可不察哉
				(東國史)	(史實)	東方初無君長……
					(맺음말)	於戲……嗟爾小子宜其觀感而興起哉

39) 이 단서를 일러주신 韓國古典飜譯院의 成百曉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40) 〈資料 8〉"『立巖集·追補』「癸丑甲契錄」" 참조.
41) 〈資料 6〉"朴世蓊" 참조.
42) 〈資料 7〉"靑莊館全書 卷54,「盎葉記1· 東國史」"("東國史略 : 모두 5部이다. …… 一部는 閔齊 仁이 지었는데 3卷이다.") 참조.
43) 〈表 2〉"『童蒙先習』의 著者에 대한 諸說"의 제4항 참조.

『童蒙先習』의 構成에 대해서 그 章節 題目의 체재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童蒙先習』의 體裁는 '父子', '君臣', '夫婦', '長幼', '朋友', '總論' 등 여섯 개의 章節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總論'에는 '(五倫)'에 대한 맺음말이 기재되면서 부가적으로 '(歷代要義)'가 기술되어 있다. 한편,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童蒙先習』의 構成을 분석해 보면, 『童蒙先習』의 내용은 '(五倫)'으로 구성된 經部와 중국과 동국의 역사가 기술된 '(歷代要義)'로 구성된 史部로 양분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즉 『童蒙先習』은 經部와 史部의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필자는 위에서 살펴 본 朴世茂와 閔齊仁의 關係 및『童蒙先習』의 構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童蒙先習』의 전반부로서 經部에 해당되는 '(五倫)'은 박세무가 집필하고 후반부인 史部에 해당되는 '(歷代要義)'는 역사에 정통한 閔齊仁이 집필한 것으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童蒙先習』 平壤癸卯本 「尹仁恕 跋文」에서 尹仁恕는 閔齊仁이 同志와 함께 『童蒙先習』을 共述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역사에 정통한 閔齊仁이 共述한 것으로 상상되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 앞의 〈『童蒙先習』의 構成과 內容〉에 보이듯이 그것은 經部와 史部 두 가지 내용가운데 史部의 내용 즉 '(歷代要義)' 부분을 저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結 言

본 연구는 『童蒙先習』의 저자에 대한 定論을 수립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래 살펴보지 못했던 몇 가지 자료에 의거하여 『童蒙先習』의 저자에 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고에서 지금까지 고찰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童蒙先習』 平壤癸卯本의 간행 경위를 기록한 尹仁恕의 跋文에서 尹仁恕는 閔齊仁이 同志와 함께 『童蒙先習』을 共述한 것이라고 하였다.

②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여러 문헌 기록을 통해 보았을 때, 朴世茂 역시 그 著者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③ 朴世茂와 閔齊仁 두 분은 친구의 형, 동생의 친구인 관계이었다.

④ 閔齊仁은 역사에 정통하였다.

⑤ 『童蒙先習』은 經部와 史部의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史部에 해당되는 '(歷代要義)'는 역사에 정통한 閔齊仁이 집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44) 『童蒙先習』에는 '五倫'이라는 章節 題目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제 필자는 이상과 같은 고찰과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즉『童蒙先習』은 朴世茂와 閔齊仁의 共著로서 朴世茂는『童蒙先習』내용 가운데 전반부인 經部에 해당되는 '(五倫)'을 집필하고, 閔齊仁은 후반부인 史部에 해당되는 '(歷代要義)'를 저술한 후 合編한 것으로 판단된다.

〈資料 1〉"閔齊仁"

민제인(閔齊仁)은 1493년(성종 24)에 태어나 1549년(명종 4)에 沒하였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여흥(驪興)이고, 자는 희중(希仲), 호는 입암(立巖)이며, 전적(典籍) 구손(龜孫)의 아들이다. 1520년(중종 15) 문과에 급제하여 호당(湖堂)에서 독서하다가 이듬해 승정원주서로 탁용되었다. …… 1536년 호조참의를 거쳐 홍문관부제학·사간원대사간을 역임하고, 1538년 승정원동부승지가 되었다. 이때 국왕의 명을 받아 〈구언전지 求言傳旨〉를 지어 올렸다. 승정원에서 3년 봉직한 뒤, **1541년 외직으로 나아가 평안도관찰사가 되었고**, 이어서 사헌부대사헌·형조참판을 역임하였다. …… 이어서 병조판서·이조판서를 역임하고 우찬성을 거쳐 1547년(명종 2) 좌찬성에 올라 진휼사(賑恤使)를 겸임하며 민심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 문장과 역사에 능통하였다.

(출처: http://koreandb.empas.com/history/people/detail?sn=7560)

〈資料 2〉"朴世茂"

박세무(朴世茂)는 1487년(성종 18)에 태어나 1554년(명종 9)에 沒하였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함양(咸陽)이고, 자는 경번(景蕃), 호는 소요당(消遙堂)이다. 생원 중검(仲儉)의 아들이다. 1516년(중종 11)사마시에 합격하고, 1531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승문원에 들어가 헌납을 거쳐 사관(史官)이 되어 직필(直筆)로 당시의 세도가인 김안로(金安老)의 미움을 사게 되어 **1539년 마전군수로 좌천되었다가 관직에서 물러났다**. 1544년 전적(典籍)·참교(參校)로 복직되었고, 이듬해 사복시정이 되었다가 안변부사로 나갔으며 그 뒤 내자시정·내섬시정·군자감정을 역임하였다.

(출처: http://koreandb.empas.com/history/people/detail?sn=7367)

〈資料 3〉 "金安國"

김안국(金安國)은 1478년(성종 9)에 태어나 1543(중종 38)년에 沒하였다. 조선시대 문신·학자이다. 본관은 의성이고 자는 국경(國卿)이며, 호는 모재(慕齋)이다. 참봉 연(連)의 아들이다. 1501년(연산군 7) 생진과에 합격, 1503년에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등용되었으며, 이어 박사·부수찬·부교리 등을 역임하였다. 1507년(중종 2)에는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 지평·장령·예조참의·대사간·공조판서 등을 지냈다. 1517년 경상도관찰사로 파견되어 각 향교에 《소학》을 권하고, 《농서언해 農書諺解》·《잠서언해 蠶書諺解》·《이륜행실도언해 二倫行實圖諺解》·《여씨향약언해 呂氏鄕約諺解》·《정속언해 正俗諺解》 등의 언해서와 《벽온방 辟瘟方》·《창진방 瘡疹方》 등을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였으며 향약을 시행하도록 하여 교화사업에 힘썼다. …… **1532년에 다시 등용되어 예조판서·대사헌·병조판서·좌참찬·대제학·찬성·판중추부사·세자이사(世子貳師) 등을 역임하였으며, 1541년 병조판서 때에 천문·역법·병법 등에 관한 서적의 구입을 상소하고,** 물이끼 [水苔]와 닥[楮]을 화합시켜 태지(苔紙)를 만들어 왕에게 바치고 이를 권장하였다.
(출처: http://koreandb.empas.com/history/people/detail?sn=11292)

〈資料 4〉 "魚叔權"

어숙권(魚叔權)은 생몰년 미상으로 조선 초기의 문인이다. 본관은 함종(咸從)이고, 호는 야족당(也足堂) 또는 예미(曳尾)이다. 좌의정 세겸(世謙)의 서손(庶孫)이다. 1525년(중종 20) 남곤(南袞)의 청으로 설치된 이문학관(吏文學官)에 참여하여 최세진(崔世珍)에게 수업하였다. …… **1537년에 이문학관으로서 중국사신을 수행하였다.** …… **1540년 교서관(校書館)의 감교관(監校官)으로 있었다.** …… 1541년 김안국의 건의로 문과와 같은 제도를 갖춘 한리과(漢吏科)가 설치되어 초시에 합격하였으나, 김안국이 죽자 한리과는 폐지되고 말았다. …… 1554년(명종 9) 《제왕역년기 帝王曆年記》 및 《요집 要集》의 소략하고 상세함이 한결같지 않음을 보고는 이들을 참조하여 《고사촬요 攷事撮要》 3권을 지었다.
(출처: http://koreandb.empas.com/history/people/detail?sn=3454)

〈資料 5〉"尹仁恕"

윤인서(尹仁恕)는 그의 생몰년은 미상으로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파평(坡平)이고, 자는 사추(士推), 호는 타괴(打乖)이며, 옥진(玉珍)의 아들이다. 1536년(중종 31) 친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2년뒤 탁영시(擢英試)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중종 때 김안로(金安老)에 아부하여 홍문관정자가 되었다. …… 1546년(명종 1) 사헌부 장령이 되었으며**, 이어홍문관교리·사간·성균관사성·의정부검상·사인 등을 역임하였다. 1549년 승정원동 부승지가 되었으며, 이어 대사간·홍문관부제학에 제수되었다. …… 1554년 의정부참찬에 제수되고, 이어 강원도관찰사·예조참판·동지중추부사·전라도관찰사·한성부우윤·호조참판을 거쳐 1564년 경기도관찰사가 되었으며, 1568년(선조 1) 대호군 재임 중 사헌부의 탄핵으로 관직을 삭탈 당했다.

(출처: http://koreandb.empas.com/history/people/detail?sn=14915)

〈資料 6〉"朴世蓊"

박세옹(朴世蓊)은 1493년(성종 24)에 태어나 1541년(중종 36)에 沒하였다. 조선 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함양(咸陽)이고, 자는 경운(景雲)이며, 생원 중검(仲儉)의 아들이다. 1519년 생원이 되고 1525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로 등용되었다. 그 뒤 사학(史學)의 재능을 인정받아 예문관검열을 거쳐 봉교가 된 뒤 성균관전적을 지내고 사간원정언에 올랐다. 그리고 예조와 병조의 좌랑을 거쳐 세자시강원사서·홍문관수찬을 지내고 이조좌랑으로 옮겼다.

1533년 부친상을 당하여 사퇴하였다가 1536년 시강원문학을 거쳐 지평이 된 뒤 장령에 승진하였다. 의정부검상을 지내고 사인(舍人)에 올랐다가 다시 홍문관응교가 되었다. 그 뒤 사간을 거쳐 시강원필선을 지내고 보덕에 올랐다. 얼마 뒤 홍문관전한을 지내고 직제학이 되었다. **1539년 예조참의가 되어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갔다가 돌아왔다.** 이듬해 병조참의를 지내고 이조참의가 되었다.

(출처: http://koreandb.empas.com/history/people/detail?sn=7364)

〈資料 7〉『靑莊館全書』卷54,「盎葉記1 · 東國史」

東國史畧 凡五部 一權近撰 一朴祥撰 三朝鮮四郡二部三韓三國紀一卷 新羅紀一卷 高麗紀四卷 一李堣撰 一柳希齡撰 凡十二卷 先提其綱 後叙其實 以中國東國傳授捻圖 歷代國都分理世系等圖 及世年歌 置其首 一**閔齊仁撰三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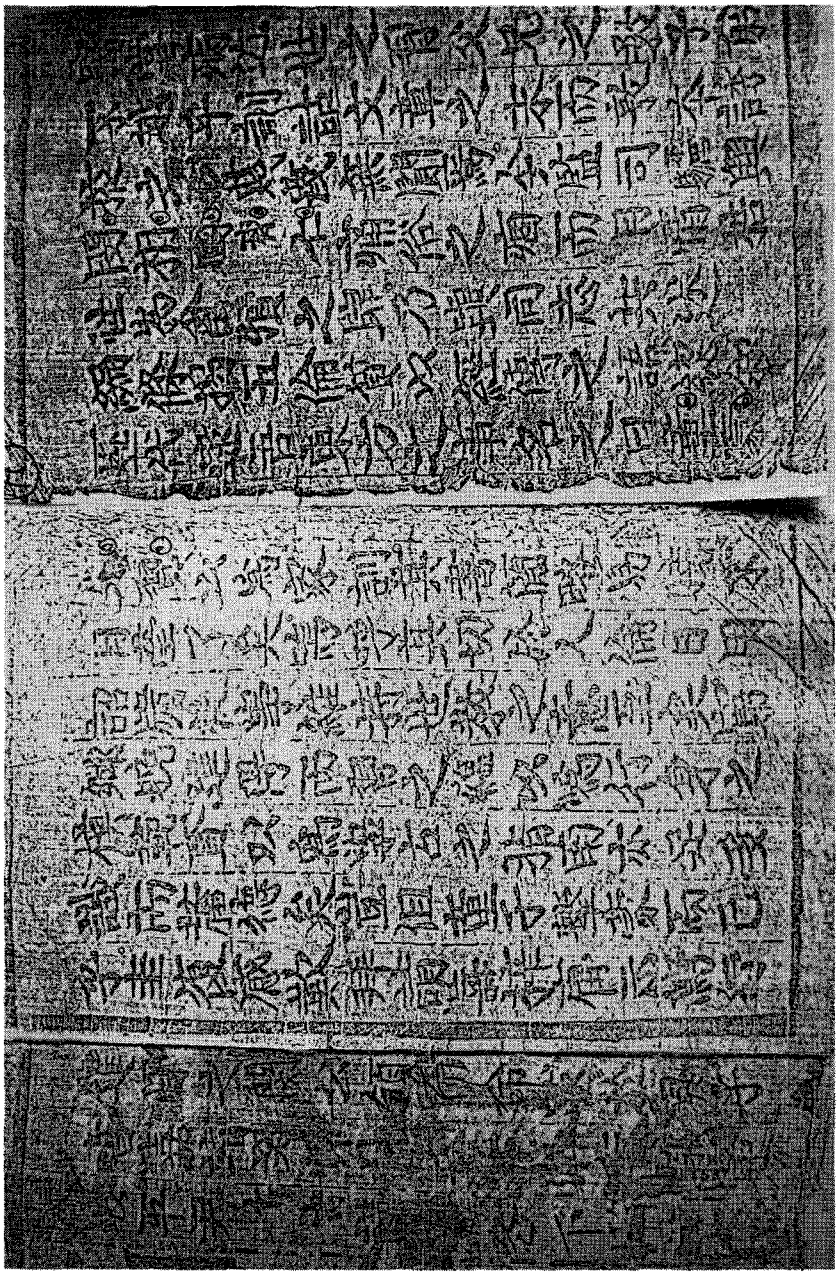
(『靑莊館全書』는 李德懋의 저술 총서로서 1795년(正祖 19년) 內帑金을 받아 아들 이광규가 편집 간행한 것이다.)

〈資料 8〉『立巖集 · 追補』「癸丑甲契錄」

正月	任弼亨	字亨之		文 海伯	豐川人	一日
二月	朴 紹	字彦胄	號治川	文 司諫	羅州人	十四日
	成守琛	字仲玉	號聽松	逸 縣監	昌寧人	十九日
三月	尹 忭	字懼夫	號知足菴	文 監正	海平人	十日
	閔齊仁	**字希仲**	**號立巖**	**文 贊成**	**驪興人**	**十三日**
	宋之翰	字于蕃		進 府使	礪山人	十八日
五月	李 興	字禎父		蔭 察訪	慶州人	二十一日
六月	尙 震	字起夫	號泛虛亭	文 左相	木川人	五日
七月	許伯琦	字汝珍	號三松	文 參判	金海人	十日
八月	**朴世蓊**	**字景雲**		**文 吏議**	**咸陽人**	**八日**
	崔景弘	字毅翁		文 正字	慶州人	十八日
九月	柳世龜	字應祥		進 典籤	全州人	二十三日
	李光軾	字伯欽		武 兵判	羽溪人	三十日
十月	張 玉	字子剛	號柳亭	文 舍人	德水人	三日
	洪德演	字叔容		文 僉中	唐城人	二十七日
十一月	宋 純	字守初	號俛仰亭	文 參贊	新平人	十四日
	李 嶸	字士高	號靜軒	文 承旨	延安人	十八日

(『立巖集 · 追補』에 附錄된「癸丑甲契錄」은『立巖集』이 1926년 補刻 後刷될때「箕子爲武王陳洪範論」1편과 함께『立巖集』에 追補된 내용이다.)

〈資料 9〉 "『童蒙先習』平壤癸卯本 尹仁恕 跋文의 書影"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